

영산강 보 개방에 멸종 위기종이 돌아왔다

수질·생태계 회복...2019년 녹조 발생, 예년대비 97% 줄어 퇴적물 내 모래 많아지고 유기물질 감소로 용존산소량 늘어

영산강 승촌보(淤)와 죽산보의 개방으로 영산강에 야생동물이 되돌아오는 등 수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 개방으로 수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지역환경단체들은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가 결정된 죽산보의 후속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13일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를 포함한 금강, 낙동강 등에서 개방한 11개 보에 대해 2017년 6월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개했다.

11개 보 중 완전 개방 일수가 가장 긴 보는 금강 세종보(1072일)였으며, 승촌보와 죽산보는 각각 248일, 143일을 간 개방됐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영산강의 녹조(유해 남조류) 발생이 보 개방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2013~2017년)과 유사한 기상 조건이었던 2019년 영산강의 여름철(6~9월)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163cells/μl로 예년 평균(4693cells/μl)에 견줘 97%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우량이 많았던 2020년에는 유해남조류세포수가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보 개방으로 하천의 체류시간이 최대 88% 짧아지고 물살이 813% 빨라지는 등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녹조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승촌보는 보 완전개방 후 저층빈산소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빈산소는 물속 산소 양이 2mg/L 이하 상태로, 하천 저층에 용존산소가 부족하면 저서성 수생생물과 수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보 개방으로 인해 하천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의 경우 죽산보가 개방 전과 비교해 1.7배(51.8%→88.2%) 증가하면서 11개 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퇴적물 내 모래 비율이 높아지고 유기물질이 감소하면, 자정작용이 활발해지고 수중 용존산소량이 증가하면서

수질·수생태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보 개방 후 광범위하게 조성된 모래톱, 하중도, 습지, 식생대 등 공간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을 포함한 다양한 육상생물의 서식·번식 및 휴식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강과 수변공간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물새류가 장기간 보를 개방한 영산강과 금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특히 죽산보 상류에서는 지난해 12월 멸종위기동물 I급인 황새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를 개방하여 3년 이상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역환경단체는 이와 관련해 보 해체와 강을 살리는 후속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는 “보 개방으로 인한 자연성 회복이 재차 관측 결과로 드러난 만큼 죽산보 해체 등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후속조치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울긋불긋 철쭉 만개 13일 울긋불긋 철쭉이 만개한 광주시 북구 동강대 교정을 시민들이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상상을 현실로’ 전남교육청, 미래형SW 교실 확대

인공지능 시대 대비 올해 40개교 추가 구축

전남교육청이 각급 학교 내 노후화된 컴퓨터실을 미래형 소프트웨어(SW) 교실로 전환하는 등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미래형 SW 교실은 30년 가까이 된 학교 내 컴퓨터실을 미래형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양한 교과와 교육활동용 소프트웨어로 연결, 창의적 협력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9년 7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80개교, 올해 40개교를 추가 구축한다.

도 교육청은 미래형 SW교실을 지속해 늘려나가는 등 미래교육 변화를 선도한다는 복안이다. 모둠별 협력수업이 가능한 책상배치와 학생 간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등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방침이다.

고광진 전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고민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미래형 SW 교실을 구축했으면 한다”며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양초교 부지에 생활SOC 복합시설 만든다

광주교육청·북구 협약, 빛고을교사지원센터·국민체육센터 등

광주교육청은 휴교한 경양초등학교 부지에 빛고을교사지원센터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SOC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북구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학교부지를 활용, 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학교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해 학생과 주민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경양초 학교부지 내 건립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은 지하 1층~지상2·3층 규모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과 학교 밖

현장 맞춤형 연수 공간인 빛고을교사지원센터를 포함, 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주거지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116억원으로, 이번 사업은 자치단체·지역 관계자·시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된 결과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 달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오는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빛고을교사지원센터를 통해 미래교육을 대비한 교원 전문성 신장과 혁신교육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겠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학교복합시설을 제공,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민원업무 점심휴무 연기 광주 구청장협의회 “준비 부족”

광주시 공무원노조가 5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광주시 5개 구청장들이 ‘준비가 부족해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와 시기를 공무원 노조와 다시 협의하기로 결의내렸다.

점심시간 휴무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게 구청장들이 이번 결정을 내린 이유다.

일부 자치구는 점심시간 업무 공백을 일부 해소할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구매를 위해 추경일정이 맞지 않아 5월 이전 예산 마련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세다.

13일 국민의 힘 김기운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지난 2017년 3건에서 지난 2019년 26건으로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3건(2017년)→15건(2018년)→18건(2019년)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전남도 2019년 8건의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 2018년(2건)에 비해 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늘면서 부상자도 2017년 4명, 2018년 18명, 2019년 29명 등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부상자들의 40%는 머리와 얼굴 등을 다친 것으로 파악했다.

강 의원은 “최근 공유킥보드 등 이동장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차이나센터 中 사진전 인민일보에 소개

광주차이나센터의 사진전이 중국 대표신문인 인민일보에 실렸다.

인민일보 중국 국내판은 4월 13일 한국광주발로 ‘중국 탈빈곤 사진전이 광주차이나센터에서 개막됐다’는 내용의 신화통신 기사를 3면 하단에 게재했다.

기사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광주시 김종효 부시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탈 빈곤성과 사진전이 한국 광주시의 차이나센터에서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대광새마을금융고회관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융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